

2024 사우회장쫄 바둑대회 열려



2024 사우회장쫄 바둑대회가 바둑동호회(회장 이진섭) 주관으로 10월 16일(수) 10시에 사우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16명의 棋士가 참가한 이번 대회는 1급~5급을 A組, 6급~10급을 B組로 나누어 진행했다.

대회의 공정성을 위해 특별히 프로棋師 한철균 9단을 심판위원장으로 초빙했다.

한철균 9단은 대국을 종료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면 지도 대국도 펼쳤고 『세기의 모든 불임』 등 자신의 저서 10권도 기증했다.

다섯 시간에 걸친 접전 끝에 A組 우승 이진섭, 준우승 박종규, B組 우승 유흥철, 준우승 정태식이 결정됐

다. 우승자에게는 트로피와 상품(정관장 홍삼 진본), 준우승자에게는 상품(정관장 홍삼 골드)이 수여됐다. 사무처에서는 참가자 전원에게 유명 제과점의 케익을 선물했다.

바둑동호회는 10월부터 이진섭 회장과 김종한 총무로 새 집행부를 꾸렸으며 바둑을 좋아하는 사우회원 중 아직 바둑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바둑동호회 모임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에 사우회 회의실에서 갖는다.



A조 우승 이진섭



B조 우승 유흥철



한철균 9단(왼쪽)

가을 등산대회 성황리에 마쳐



사우회 주최 가을 등산대회가 10월 23일(수) 우면산 자락에서 열렸다. 전날 종일 비가 내린 탓에 약간 쌀쌀한 날씨에도 출발 한 시간 전부터 모이기 시작한 회원들은 모두 47명.

그 중 92세인 노시창(전주)회원은

먼저 '양재시민의 숲 공원'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여 10시 30분에 46명이 남부터미널 앞에서 출발했다.

약 40분 후 우면산 능선에서 잠시 휴식, 12시 15분 '양재(매현)시민의 숲 공원'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뒤 '제주흑다돈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으로 바로 온 회원을 포함해 총 52명. 최정일 산악회장의 인사말과 장명호 사우회장의 격려사를 듣고 사우회가 준비한 김치찌개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

88세인 오정수(기술)회원은 올해도 완주를 해서 노익장을 과시했고 강복주(대전)회원은 홍일점으로 참가했다. 다만 같은 날 열린 방송기자클럽 행사 때문에 보도부에서 김진호 회원만 참가한 점은 다소 아쉬웠다.



송년모임은 12월 5일입니다

〈2024 사우회 송년모임〉이 12월 5일(목) 오후 5시에 역삼동 GS타워 1층에 있는 『아모리스 역삼』에서 열립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찾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를 보내면서 반가운 만남과 情談이 오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2월 5일(목) 오후 5시
역삼동 GS타워 1층에 있는 『아모리스 역삼』



한문공부동호회 역사·문화탐방



한문공부동호회(회장 양진수)가 주관하고 사우회가 지원하는 역사·문화탐방이 10월 29일(화) 실시됐다. 이건설 訓長을 비롯한 한

문공부동호회원들과 장명호 사우회장과 일부 임원들이 참가한 이번 탐방 지역은 '역사의 고향' 강화도였다. 오전 9시, MBC가 지원한 버스에 탑승한 일행 24명은 11시쯤 강화도 교동향교 喬桐鄉校에 도착, 한기출 典校로부터 교동향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보급과 중앙집권체제의 유지를 위해 조선조 태조 7년(1398년) 성균관으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됐으며 특히 교동향교는 향교 중의 으뜸이라 하여 수향首鄕이라 불린다고 한다. 향교 견학을 마치고 일행은 예약된 식당으로 가서 오찬을 가졌다.

그에 따르면 교동향교는 고려 인종 5년(1127년)에 건립됐고 충렬왕 12년(1286년)에 유학자 安 向이 원나라에서 공자와 제자 10인의 초상을 가져와 모신 국내 최초의 문묘 文廟 제행소 祭行所 겸 교육기관이었다. 향교는 조선시대 유교이념의

이어서 고려 궁궐이 있었던 궁지 宮趾를 탐방한 뒤 고려가 몽고와의 전쟁 당시 강화해협을 지키던 중요한 요새인 갑곶돈대로 향했다. 그러나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다음 일정을 취소하고 5시에 탐방을 종료했다.



발전 기금을 주신 분들(9월 15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sau.com>)에 있습니다

- 이동원(관리) 50만원
- 유조동(관리) 30만원
- 윤재복(관리) 30만원
- 김보영(관리) 20만원
- 김점용(편제) 10만원
- 전용수(편제) 10만원
- 김태홍(기술) 10만원
- 신준동(관리) 10만원
- 김종국(관리) 10만원
- 장상복(관리) 10만원



이동원 유조동 윤재복 김보영 김점용



전용수 김태홍 신준동 김종국 장상복

회비와 발전기금을 보낼 계좌번호

연회비는 사우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됩니다.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들께서는 사우회가 드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발전기금은 사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금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sau.com) 또는 사무처(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지상파 방송 4社 사우회장 회동會同

10월 27일 KBS사우회 육경섭 회장의 초청으로 김벽수 SBS사우회장, 박명하 EBS사우회장, 장명호 MBC사우회장이 여의도 '산삼골'에서 만났다.



(왼쪽부터) 육경섭, 박명하, 장명호, 김벽수

예산 확보 방안, 회원 관리, 경조사 지원 등 사우회의 공통 관심사들이 거론됐으며 앞으로 4사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사 등에 관해 다양한 얘기를 나눴다. 소속사는 다르지만 같은 방송인으로서 폭넓은 교류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원고를 기다립니다

글을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나이 들어 눈도 침침하고 기억도 전 같지 않은 분들이 뭔가 자기 얘기를 글로 표현한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 탓에 회보를 만들면서 원고를 청탁했다가 거절을 당한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충분히 쓰실만한 분이 냉정하게 사양할 때는 내심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SNS를 통해 많은 글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고 그 일부를 가져다 신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의 글만 실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우회원들이 읽고서 공감하거나 최소한 수긍할만한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글은 내용이 무엇이든 신고자입니다. 살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체험한 일들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한 장 반이면 됩니다. 가급적 읽을거리가 풍부한 사우회보를 만드는데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인 올림.

경조사항

구순: 이한익(기술) 35.11.18. 오승룡(기술) 35.12.05
 팔순: 이한수(편제) 45.12.10. 김채영(ANN) 46.01.08.
 서정호(대구) 46.01.09. 노영인(편제) 46.01.17
 고희: 이학규(편제) 55.11.17. 이동일(관리) 55.11.21 박신서(편제) 55.11.25.
 김영일(보도) 55.12.05. 윤주혁(관리) 55.12.10. 강신천(관리) 55.12.14.
 이석균(관리) 55.12.15. 임병길(보도) 55.12.17. 정 준(관리) 55.12.20.
 선병조(편제) 55.12.24. 안성일(보도) 55.12.25. 고대석(보도) 56.01.02
 김종국(보도) 56.01.05. 이명숙(관리) 56.01.08. 홍두표(관리) 56.01.08.
 심승보(보도) 56.01.09. 김애정(관리) 56.01.10.
 회갑: 오태돈(보도) 64.11.26. 유효근(관리) 64.12.14.
 정보영(ANN) 64.12.25. 이선태(편제) 65.01.11.
 결혼: 김인수(관리) 딸 10/04 권병국(편제) 아들 10/13
 김영철(편제) 아들 10/26 박한근(기술) 아들 11/03
 한병우(보도) 아들 11/09 윤영례(업무) 딸 11/10
 오순심(편제) 딸 11/10 이원영(기술) 아들 11/23
 성경섭(보도) 아들 12/01 권호식(기술) 딸 12/07
 강지현(관리) 딸 12/14
 부음: 이상로(보도) 모친상 08/31 하재영(편제) 부친상 09/01
 정명모(기술) 모친상 09/02 마병두(편제) 장모상 09/19
 정찬형(편제) 장인상 09/25 조형철(관리) 장인상 09/26
 이선태(편제) 부친상 10/07 이우호(보도) 모친상 10/13
 유덕진(보도) 장인상 10/25 이동원(관리) 부친상 10/30

김종연(편제) 노홍식(편제) 이명숙(관리) 이효석(관리)
 전형찬(관리) 정명모(기술) 최용원(편제) 홍학표(업무)
 2025년: 권윤성(기술) 김영택(보도) 박성배(편제) 원신애(관리)
 2026년: 김종국(관리) 전용수(편제)

주소변경 / 신규

편제: 마병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후촌길 (줄포리)
 박상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11(백석동, 흰돌마을5단지)
 박성배 서울 구로구 고척로25길 82 (개봉동, 골드원아트빌)
 윤창호 인천 서구 검단로 786 (블로동, 퀸스타운길훈아파트)
 정성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ANN: 고창근 경기 양주시 덕계로 138-32 (센트럴휴티스아파트)
 최창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70(중산동 센트럴아이파크)

보도: 김용철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95(홍제 센트럴아이파크)
 김현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윤여복 서울 마포구 광성로 17 (신수동, 신촌숲아이파크)
 이상이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60 (천호엘크루주상복합)
 이선태 충북 제천시 송학면 명암로 (도화리)
 정우석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104 (당감동 국제백양아파트)

기술: 유경갑 서울 동작구 신대방16길 31 (신대방동 신광섬유)
 정명모 충남 논산시 중앙로384번길 43 (취암동)
 조복현 경기 파주시 미래로310번길 56-71(동패동 골드리치)

관리: 김대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140(큰마을대림현대아파트)
 박순성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4-7(효누림실버타운)
 송석철 경북 구미시 봉곡남로11길 34 (봉곡동) 타워팰리스
 안재호 서울 동작구 알마타길 37 (대방동, 대방1차e-편한세상)
 유조동 경기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 55 (풍덕천동, 한성아파트)
 이명숙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17(원흥 호반베르디움 더퍼스트)
 임부영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2로59번길7(일산파밀리에3단지)
 장한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76(샘터마을1단지아파트)
 정 준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로7번길 60(e편한세상 광안비치)
 홍용선 인천 중구 화랑목로 62-4(운서동) 광명리치빌

연회비

평생회비: 김현경(보도) 손인식(편제) 안재호(관리)
 유경갑(기술) 정성후(편제)
 2023년: 오정우(관리) 최영호(편제)
 2024년: 권수훈(관리) 고창근(ANN) 김경일(관리) 김규홍(관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金文起(기술)
 9월 8일 별세. 향
 년 85세. 1964년
 기술국 입사. 라디
 오기술부 등 근무.
 1995년 퇴사.



許哲萬(미주)
 10월 20일 별세.
 향년 84세. 1970년
 총무부 입사. 1976
 년 퇴사 이후 미국
 으로 이주.

회/원/동/정/

원만식(편제)



10월 15일 국악방
 송 방송본부장에서
 국악방송 사장으로
 선임됐다. 원 회원
 은 재직 시 <전주대
 사습놀이>를 연출
 했고 전주MBC 사장 재직 중에도
 국악 진흥에 많은 기여를 했다.



채정수(편제)
 서양화가이자 서예
 가인 채 회원은 10
 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서울 인사
 동 TOPOHAUS갤

러리에서 『발길 머무
 른 곳』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가졌다. 일
 상에서 만난 사람들과
 장소, 풍경과 사물들
 을 작품 소재로 했다.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 김현경(보도)
 1986년 ANN입사.
 보도국, 통일
 문제연구소 소장 등
 근무. 2024년 퇴사.



▶ 이명숙(관리)
 1980년 총무국
 총무부 입사. 인사부
 등 근무.
 1998년 퇴사.



▶ 안재호(관리)
 1995년 입사. 신사
 옥건설국, 자산운영
 국장 등 근무. 2024
 년 퇴사.



▶ 정성후(편제)
 1987년 PD 입사.
 교양제작국, 시사
 교양본부 등 근무.
 2024년 퇴사.



▶ 유경갑(기술)
 1985년 기술국입사.
 보도, 제작기술부,
 TV송출부 등
 근무. 2019년 퇴사.



▶ 남궁 찬(편제)
 1991년 PD 입사.
 드라마국, 예능국,
 시사교양본부 등
 근무. 2024년 퇴사.

<작별 인사드립니다>

2014년에 시작한 편집장을 이번 號를 끝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원고
 를 써주신 회원님들과 열심히 읽어주신 회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한 號를 만들고 나면 다음 號에 대한 걱정으로 긴 세
 월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행여 誤字가 있으면 어쩌나, 원고가 재미없다고 하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
 을 더 이상 갖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볍습니다. 새해부터는 김
 승월(편제, 이사) 회원이 편집을 맡기로 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알차고 다
 양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동안 많이 성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집인 김상옥 올림

실버포엠(Silver Poem) 속으로



‘실버포엠’은 사전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노인을 위한 詩’ 썸의 뜻으로 제가 조립한 단어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쓰는 수필적 발상에 시적인 짧은 형식을 결합한 短文 즉 老世대의 만가 晩歌 썸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엔 “실버세대를 위한 소망, 애환, 사랑, 위로를 함께 나누고 노래하며”라는 부제 副題가 따릅니다.

***〈뿔이 중한디?〉**
웰빙이여? 웰다잉이여?
아녀, 웰투게더여! ,

***〈봄날은 항상 온다〉**
사춘기-청춘기-회춘기

***〈주민증의 힘〉**
열차표 우대권, 영화관 할인권
고적지 입장권, 관광지 통행권

위 세 예문에서 보듯 모든 기본은 자유죠. 표현이나 행간도 내킨 대로 갑니다. 시의 모양새와 운율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주제는 ‘노령, 노구, 노심’에 대한 단상이면 뿔이든 됩니다. 어차피 소재와 주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老입니다.

늙음과 나이 들에 대하여 하고 싶은 얘기, 푸념과 녀두리, 읊고 싶은 소회를 짧고 단출하게 튕겨내는 ‘노생 老生의 소리’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신변잡기는 중요한 소스며 주변 잡상 雜想도 애용하는 단서가 됩니다. 아래처럼 신변과 일상에서 건질 수 있는 소재는 쓸쓸히 많습니다.

***〈매우 작은 행복〉**
가자마자 지하철 오고,
타자마자 빈자리 있고,
깨자마자 내릴 역이네.

***〈지금도 어려워〉**
짜장면 먹을까, 짬뽕으로 할까

***〈식탁소리 70년〉**
‘흘리지 마’ ‘묻히지 마’
어릴 적 들던 소리 지금도 듣는다

***〈노생들아〉**
아무렇게 살지 마라,
그럼 아무렇게 늙는다

금년 초부터 편편히 쓰고 있는 이 단가는 과거지향일 수밖에 없는 노년의 회고에서 출발합니다. 기억, 성찰, 회한을 간추리고 가벼운 유머로 코팅하여 밝은 에너지가 나오는 출구로 정리해 봅니다.

요컨대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경쾌한 관점을 전제하되 ‘끈대의식, ‘늙음과 죽음’에 대한 비관이나 두려움은 절제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픈 현실도 삼갑니다.

노인 금기 禁忌라 할 수 있는 ‘염세와 한탄’도 낙관적인 일상 언어로 풀어내 여생의 넉넉한 공감을 함께 나눠보는 것입니다.

***〈인생 말년엔〉**
남길 건 별로 없어도
버릴 건 매우 많아

***〈꽃과 인생〉**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아프지 않고 늙어간 삶이 어디 있으랴.

***〈노인 필수 법〉**
혼자 노는 법, 혼자 먹는 법,
혼자 자는 법

***〈나잇살, 주름살〉**
나잇살이 주름살에 말했다.
‘너 나 따라오지 마!’

***〈똥배〉**
올챙이 적 생각보다
올챙이 배 다스려라

***〈꽃과 꿈〉**
고목이라고 늙은 꽃 핀다더냐
노인이라고 늙은 꿈 꾀다더냐

***〈귀속 귀뚜라미〉**
내 귀엔 귀뚜라미 살고 있다
가끔 소프라노, 때론 바리톤

쓰다 보니 소재에 몇 줄기의 가닥이 잡힙니다. 윗글처럼 우선 나이의 무상함입니

다. 자화상 대한 새삼스런 소묘지요, 세월의 야속함, 백발의 무정함도 같은 향렬로 묶입니다.

유종 有終에 대한 두려움은 몸 상태에 따라 오락가락합니다. 마음 따라 간다는 종심 從心의 7순 나이는 이미 몸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종신 從身의 처지로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달라집니다.

또한 세상이 나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이럴 땐 ‘빛이 비치는 쪽, 꽃이 피는 쪽, 웃음소리 나는 쪽’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좋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죽기 싫으면 죽어라 걷고
백발 싫으면 백번 걸어라

***〈마지막은 ‘혼’테크〉**
재財테크-시時테크
우友테크-혼獨테크

***〈경로석 결투〉**
‘나 개띠 병술년 78세다’
‘나 닭띠 을유년 79세다’
‘어디 주민증 좀 봅시다’
‘어디 한 살 어린 게 감히~’

별다른 재주나 취미가 없는 나로선 그나마 종이 위에 몇 자 끝찍대는 버릇이 신세 타령의 너움을 쓰고 ‘실버포엠’으로 탈바꿈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늙고 있다는 인식, 나의 동년배와 정서를 공유하는 방식,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형식이기도 합니다.

-세대 차에서 빗어지는 엇박자도 좋은 먹거리가 됩니다. 젊은 시절의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어 자신의 노쇠함을 관조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연금 부러워 마라〉**
탈 때보다 낼 때가 백배 좋을 때다.

***〈老호박이 애호박에게〉**
네 나이로는 죽도 못 쏜다.
나물로 무치든가 국물로 들든가!

*〈아직도 먼 소리〉
 큐알 찍으세요, 로그인 하세요,
 앱 까세요, 온라인 신청하세요

*〈고령화 그늘〉
 옛날엔 부모 속썩인 자식 많았어
 요사인 자식 속태운 부모 많아

*〈물과물〉
 젊은 직장에선 물 먹지 않으려 애썼지
 늙은 일상에선 물 많이 먹도록 애써라

“老人 되면 詩人 된다” 는 말이 있지요.
 다만 짓지 않을 뿐이지요.

“내 일생을 말하자면 책 한권을 족히 될
 거야..” 맞습니다.

다만 쓰지 않을 뿐이지요.
 모두들 ‘청춘예찬’의 시절을 보냈으니 당
 연히 ‘노령찬가老齡讚歌’도 따라야지요,

*〈연식 오래되면〉
 자동차 수리비나 사람 의료비나,

*〈세월 가니〉
 남녀칠세 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
 부부칠십 부동침夫婦七十不同寢

*〈뜻대로 천만에〉
 은퇴하면 잘 될 줄 알았지
 독서, 여행, 외식, 운동, 취미..

*〈배신자는 항상 주인〉
 우산, 모자, 장갑, 지팡이, 가방
 그리고 때로는 휴대폰!

*〈진짜 부잣집〉
 돈 많은 집? 아니 애 많은 집.

또한 긴 세월 동고동락한 노처老妻에 대
 한 새삼스런 고마움과 반성문도 큰 몫이
 됩니다,

*〈할미꽃 당신〉
 할미꽃은 어디서 찾아?
 내가 그 꽃인데..

*〈어차피 할매에 밀릴 나이〉
 말 싸움, 기 싸움, 수 싸움.

*〈질량불변 칩〉
 젊어서 아내 구박하면

늙어서 영감 퍽박 받는다

*〈철없는 젊음〉
 늘그막에 알았네,
 젊었을 때 몰랐던 당신의 눈물,
 한창일 때 못 다한 당신의 사랑.

*〈마누라 말씀〉
 팔으로 메주 쓴다 하기에
 두말없이 팔을 대령했다

더불어 시사時事끼리를 낚아봅니다. 세
 상 돌아가는 것, 세상이 알려주는 여러 소
 식들에 대한 즉흥적인 대중 반응이지요.

*〈유치원 vs 양로원〉
 양로원 수보다 유치원 수가
 훨씬 많은 나라가 되게 하소서

*〈81세의 당당 미녀〉
 2024 미스 유니버스 대회
 81세 할매 베스트드레서 수상
 실버들의 소망과 로망老妄을 함께

*〈아직도 절반〉
 젊은이 떠난 농촌, 절반이 노인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노인독립 만세〉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셋 중 하나가 혼자 산다
 있는 재산 다 쓰고 가겠다
 ‘대한노인 독립 만세’ !!

*〈국제 어르신 자격〉
 BTS 음악 틀어야지,
 봉준호 감독 영화 봐야지,
 임윤찬 연주 들어야지,
 노벨상 한강 책 읽어야지.

요즘 ‘쇼츠’가 대세라죠. 휴대폰 속 유튜
 브엔 중후장대重厚長大한 것보다 경박단소
 輕薄短小한 게 훨씬 어울리겠죠, 실버포엠
 도 찝막이를 좋아합니다.

*〈최후의 청춘〉 입맛. 〈같은 값이면〉 늙
 은 호박. 〈가장 무서운 병〉 간병.
 〈불멸 건배사〉 건강이~최고야! 〈진짜 영
 양제〉 웃음. 〈너 얼짱이나〉 나 노짱이다.
 〈노후 보감〉달면 뵈고 쓰면 삼켜라 〈명
 압〉산부인과 울고 애견과 웃네

끝으로 행간의 일정한 자리에 같은 운을
 을 규칙적으로 달아보는 라임(rhyme)을
 즐겨보는 것도 각별한 ‘글 놀이’가 됩니다.

*〈네 박자〉
 아껴야 부부, 돌봐야 부모
 챙겨야 자식, 만나야 친구

*〈두 발로 산다〉
 꽃밭 이미 사라졌어, 말밭도 안 서
 백밭이면 어때, 두 발 성성하면 돼

*〈노인의 삶〉
 단단하게 살기보다 단순하게 살아라
 단출하게 그리고 단란하게 보내라

*〈다다익선〉
 노생들아! 건강은 밖에 있으니
 외출 많이 해라, 외식 자주 해라
 외박 종종 해라!

*〈그림자〉
 한낮 내 그림자 세 살배기 고추보다 작다
 석양녘 내 그림자 장승배기보다 크다
 알고 보니 그림자는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었다

*〈쌈〉
 노인들 사이엔 쌈이 있다.
 그 쌈에 가고 싶다
 지혜, 경륜, 소통의 쌈터

*〈새 나라의 어르신〉
 새 나라의 어르신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서로 믿고 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실버포엠’은 유튜브 창에 들어가 이 녀
 자를 찍으면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컴맹.
 폰맹인 제가 동생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실버포엠’은 환갑을
 훌쩍 넘긴 희끗한 사우들의 〈공감-공유-
 동참〉이 원동력이 됩니다. 자작자락自作自樂
 은 언제라도 좋지요.

여러분 모두 연륜에서 비롯된 직관으로
 서 자기 노래를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자격
 이 있다고 봅니다. 소싯적 국어 실력과 오
 늘의 감수성을 살려 가볍게 ‘함께 짓고 쓰
 고 즐겨보면’ 어떨까요?

김승월 칼럼

모든 일에는 때時가 있다

김승월
(편제. 이사)

“다 짝이 있다 구. 어딘가 있으니까 언제든 만나게 될 거야”

외동딸이 혼기를 놓친(?) 뒤로 몇 차례 들은 말이다. 가까운 분들이 위로라고 한 말이겠지만 동정해서 하는 말처럼 들렸다. 지난해에는 “우리 모임에선 다 보냈고 너만 남았어” 라는 말까지 들었다. 친절하게도 남의 인생에 관심 많은 분들이 꽤 있었다.

나는 어찌다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26살에 딸을 낳았다. 별 어려움 없이 결혼하고 보니 누구나 쉽게 맺어지는 줄 알았다. “여자는 남자보다 빨리 결혼하니까 내가 MBC에서 정년 하기 전에 딸이 결혼할 거고, 일흔 즈음에는 증손을 볼지도 몰라”라는 상상도 했다.

하지만 내 나이 일흔이 됐는데 출가도 시키지 못했다. 세월은 속절없이 흘렀다. 딸아이가 마흔 고개를 넘어서부터 아내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시집가면 뭘 해. 시댁 문제, 자식 문제로 속 썩고 살잖아요. 혼자 사는 것이 마음 편하고 좋아요” 아내의 말이 일리 있게 들렸다. 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바쁘게 산다. 취미로 고전무용을 하며 제 나름 재미있게 살려고 애쓴다.

딸의 나이가 43에 들어선 올해,



명동대성당 결혼미사

나도 생각을 굳혔다. “그래,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 그게 덜 고생하고 행복할 거야, 지구 환경도 위태로운데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나구”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속마음은 여전히 씩씩했다. 짝을 지어 다니는 남녀를 볼 때마다 고개를 돌리곤 했다. 함께 일했던 방송 진행자가 술김에 자조적으로 한 말이 곱 씩혔다. “내가 젊었을 때 잘못 살아서 우리 아들이 둘 다 결혼을 못 하는가 봐”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지난 팔월에 펄쩍 뿜 일이 생겼다, 딸이 ‘결혼하겠다’며 사윗감을 데려왔다. 한 살 위인 총각으로 성격이 좋아 보이고 체구도 듬직했다. 내가 볼 때는 뭐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兩家에서 흔쾌히 받아 들여 지난 10월 4일, 명동대성당에서 혼인미사를 올렸다.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아내가 속마음을 털어냈다. “사위가 ‘장모님’하고 부를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고 살았는지 몰라”

“마음을 비워야 일이 풀린다”라는 말이 있다. “골프는 힘을 빼야 공이 잘 맞는다.” 라고도 말한다. 억지로 힘을 주거나 무리하지 말라는 뜻이겠다. 나는 절망해야 기회가 온다고 생각한다. 절망해서 포기해야 마음이 비워지고 마음이 비워져야 일의 매듭이 풀린다.

기회는 절망하고 지친 뒤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기다림에 지쳐 다른 사람을 만난 뒤에 옛사랑이 찾아오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에 절망하여 목숨을 버린 후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 지금 강의 나가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자주 해주는 말이 있다. 언론에 자살 사건 보도가 크게 날 때마다 하는 말이다. “기회는 잔인하게 찾아옵니다.”

기회는 기다릴 때 오는 게 아니라 절망하고 포기한 뒤 더 이상 기회가 필요 없을 때 옵니다.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누구에게나 왜 없겠습니까. 그때 제가 지금 한 말을 떠올려 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며 견뎌내세요. 기회는 잔인하게도 절망한 뒤에야 온다는 것을.”

몇 해 전, 가까이 지내던 한 분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던 중이었다. 그분의 아들이 회사 회계 문제로 고발을 당했다.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이어졌다.

그분은 올곧게 살아오면서도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분이셨다. 평생 주위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분이어서일까. 이런 상황을 견디기가 더 힘들어 보였다. 지인이 세상을 뜬 지 몇 달 후 아들은 기소유예로 문제에서 벗어났다. 주위에서 안타까워들 했다. “몇 달만 참으시지”

라디오PD 할 때다. 나름 색다르게 공들여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애썼다. 국제상 출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은근히 기대했지만, 다른 PD가 거론되곤 했다. 그러다가 한번은 담당 부장이던 황기찬 선배께서 특집으로 만든 어떤 프로그램을 ‘어느 국제상에 출품해보라’고 권했다. “드디어 내게도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가슴 설레지만 그것도 잠시. 국제협력 담당하는 분이 찾아와 ‘다른 부서 PD가 출품하기로 했으니 양보하라’고 통보했다. 내게는 미덥지 않은 구석이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1991년, ABU(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 출품 공모 공지문이 라디오국 벽에 걸렸지만 정면으로 보질 못했다. 며칠 후 다른 부서의 어느 PD가 출품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역시 안 된다’며 단념했다. 깨끗이 잊고 있었는데 당시 민용기 제작이사께서 출품하기로 한 작품의 주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수상 여부를 떠나 한국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내가 1991년 국제피쳐회의(International Feature Conference)에서 발표한 ‘찍을 수 없는 사진’을 지목했다. 남북분단의 비극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 프로그램은 남북한이 UN에 동시에 가입한 그 해에 ABU 라디오 정보부문 프로그램 대상을 받았다. 야구로 치면 9회 말 대타로 나가 홈런을 친 셈이다. 그 기회가 이어져서 ABU 대상을 3회, 특별상을 1회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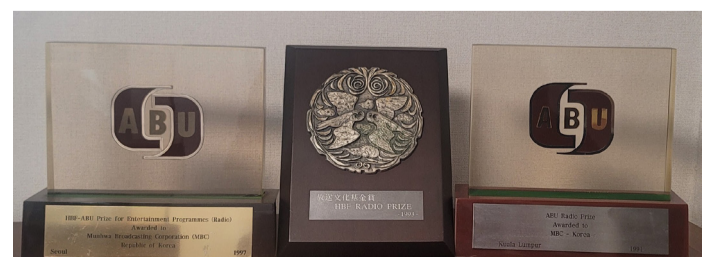
스티브 잡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때가 기회였는지도 끝까지 살아봐도 알까 말까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 인간은 속명적으로 기다림 속에서 살아야 한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Steve Jobs)가 2006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잡스의 생모生母는 대학 졸업을 입학 조건으로 내걸어 잡스를 입학 보냈고 그래서 그는 대학에 진학했다.

하지만 양부모가 가난해서 대학을 자퇴했다. 그는 대학에서 서체수업을 청강했다. 뚜렷한 목적 없이 서체를 배웠다. 덕분에 매킨토시를 만들면서 미려한 서체를 개발할 수 있었다. 과거의 노력이 현재의 성취로 이어졌다. 마찬가지로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이 점으로써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번에 딸아이의 결혼을 알리면서 비로소 혼기를 놓친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우회원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다들 잘 키운 아들 딸이고 훌륭하신 부모일텐데 어찌다 보니 그렇게 된 것뿐이다. 이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세상이 왔다.

나이 든 세대에서는 마음 편히 받아들이기 힘든 풍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딸의 늦은 결혼으로 결혼의 소중함을 새삼스레 알게 됐다. 딸도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 것이다. 혼기를 놓친 분들의 기다림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길 간절히 빈다.



ABU상패

힘껏 사는 것, 최선을 다해 죽는 것



김옥균(편제)

올해 2월 5일, 93세인 『드리스 판 아흐트』 네덜란드 前국무총리가 70여 년을 함께 해온 동갑내기 부인 외제니 여사와 손을 맞잡고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는 2019년 한 행사에서 연설을 하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건강이 좋지 않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건강 악화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서로가 서로 없이는 떠날 수 없었다”는 이 애절한 보도는 고통 속에 생의 마감을 앞둔 세계 시한부 환자들을 눈물 짓게 했습니다.

캐나다, 호주, 스위스, 벨기에 등의 나라가 네덜란드와 함께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소수 국가에 속하고 있죠. ‘적극적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약물을 투입해 직접 죽음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북남미 국가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위법이고 이를 도운 사람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2002년, “환자가 자발적으로 안락사를 요청한 경우, 환자의 고통이 절망적이고 견딜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다른 해결책이 없는 경우” 등 여섯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해마다 수십 명

에서 100명 정도의 정신질환자들이 안락사로 죽음을 맞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몇 차례 자살시도에 실패한 경우가 많아 불치병으로 죽음을 앞둔 환자와 비교하기도 하는데,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경우가 드물어 그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택한 사람은 총 8,720명으로 전체 사망의 5.1%입니다. 동반 안락사는 네덜란드에서도 흔치 않다고 합니다. 2020년 13쌍, 2021년 16쌍, 2022년 29쌍 등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한 안락사(euthanasia)라는 용어는 ‘좋은’(eu)과 ‘죽음’(thanatos)이라는 뜻의 합성어지만 본래의 의미는 ‘자연적인 죽음’을 전제했고 히포크라테스 선서(Hippocratic Oath)에 의하면 그 어떤 종류의 안락사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끊임없는 전쟁으로 사망률이 높았던 때라 삶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했었을 겁니다. 한편 육체적 절정기에 다다른 젊은이가 전사戰死한 경우, ‘아름다운 죽음’(beautiful death)이라 해서 神들의 사랑을 받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기억된다고 여겼습니다.

‘완벽한 사나이’라 불리는 영웅 아킬레우스(Achilles)에게는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는 신탁信託(神이 사람을 매개로 하여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킬레우스가 출전하지 않으면 그리스가 트로이를 상

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시민 여론과 그의 피끓는 젊음은 그를 전장에 나가지 않고는 못 견디게 했죠. 그리고 그는 비장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힘껏 살고 최선을 다해 죽음」을 맞은 겁니다.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도시 아르고스에서 태어난 클레오비스와 비톤(Kleobis & Biton) 형제는 어머니가 소달구지를 타고 급히 헤라(Hera-영웅女神) 축제에 가야했는데 들판에 나간 소가 돌아오지 않자 하는 수 없이 두 아들이 몸소 달구지의 멍에를 쓰고 어머니를 태운 다음 달렸습니다.

그들은 약 8km를 숨차게 내달려 신전에 도착했지만 축제에 모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헤라 여신이 선사한 죽음을 맞습니다. 「힘껏 살고 최선을 다한 죽음」입니다. 죽음의 격을 높인 그리스 문화의 일면이라 하겠죠.

이 신화를 통한 죽음의 격은 죽음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죽음 앞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자필멸生者必滅,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음을 맞습니다. 예외란 없습니다. 그래서 숙명宿命이라고 합니다.

모두에게 정해진 미래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이 평화롭기를, 의미 있게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로마 스토아학파(Stoicism)는 일상에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 등 네 가지 미덕을 실천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일반적으로 happiness, 잘 삶 welfare으로 해석) 즉 최선의 인생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삶의 의미를 지키려고 도모하는 일이 오히려 존재를 망가뜨리는 기막힌 순간들로 뿔뿔어지는 일들은 다반사입니다. 잘

살다가 떠나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에 의도했던 죽음이 아니어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은 살아 있는 동안 정성을 다하는 것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창했던 에우다이모니아도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우리는 뿌리 깊은 유교문화권에서 인명은 재천人命在天이라 믿어 왔기에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은 오로지 神의 영역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엄사’ 혹은 ‘안락사’라 애들러 호칭하는 ‘의료조력 사망’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존엄사는 의학적 치료를 다 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 임박 단계에 이르렀을 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최소한의 품위와 존엄을 유지하며 맞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이성의 자신을 상실하기 전에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개인, 그 선택에 대한 이해와 존중, 비록 소수의견일지라도 존중하는 사회, 아마도 의료조력 사망의 진정한 가치는 죽음이라는 결과가 아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상황일 겁니다. 각자가 치르는 고통의 무게는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있는 힘껏 사는 것과 최선을 다해 죽는 것」사이의 위계位階는 없습니다.

하나뿐인 목숨을 어떻게든 부지하는 것이 절대가치인 한국 사회에서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건 여전히 부도덕한 일이고 금기시합니다. 그러함에도 삶의 지혜는, 누구에게나 정해진 끝이 있다는 것의 자각입니다.

한 사회학자가 말했습니다. 「삶이란 죽은 자의 망막에 맺힌 나의 시간」이라고요. 참을 수 없는 질병의 통증 앞에서 최선을 다한 치료가 더는 무의미하다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환자의 의사意思에 대해 사회적 공감을 구하는 작업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 네덜란드 총리 부부



젊은 시절의 총리 부부

독보적인 1등 뉴스

2024년 4월, 8월, 10월

지상파 메인뉴스 시청률 1위

신뢰도, 열독률, 선호도 이어 시청률도 1위 안착!

MBC NEWSDESK

바른 뉴스
힘 있는 뉴스

MBC 뉴스데스크

월~금요일 저녁 7시 40분 | 토·일요일 저녁 7시 55분